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간의 관계

The Influence of Aesthetic Surgery Attitude, Self-Esteem and Body Image on Clothing Behavior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 정미실
장안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이금실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f Gyeongju-Campus of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 Misil, Chung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of Jangan College
Professor : Keumsil,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esthetic surgery attitude, self-esteem and body image on clothing behavior. Subjects were 356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by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ive factors of aesthetic surgery attitude were identified: risk tolerance of aesthetic surgery, need of aesthetic surgery, image improvement via aesthetic surgery, keeping the secret of aesthetic surgery, and others' expectation of aesthetic surgery. Second,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 and self-esteem and body-enhancement of clothing. Also, risk tolerance of aesthetic surgery, need of aesthetic surgery, and image improvement via aesthetic surgery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lothing behavior. Thir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which affected the aesthetics and body-enhancement of clothing was body image. The entertainer imitation behavior of clothing was influenced by need of aesthetic surgery, body image, keeping the secret of aesthetic surgery, risk tolerance of aesthetic surgery, and image improvement via aesthetic surgery. Preference for

luxury goods of clothing was influenced by need of aesthetic surgery and body image. Body-enhancement of clothing was influenced by body image, image improvement via aesthetic surgery, and self-esteem.

주제어(Key Words): 성형태도(aesthetic surgery attitude), 자아존중감(self-esteem), 신체이미지(body image), 의복행동(clothing behavior)

I.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루키즘(lookism)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외모차별주의가 극대화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에 따라 남녀 모두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올 초에 한 기사자료에 의하면 '성인여성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외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미용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25-29세 여성의 62%가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일보, 2007).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 중의 하나인 성형은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일반 사람들도 성형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한편, 사람들마다 성형에서 추구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이것이 의복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일부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이다(강혜원, 1995). 본인에 대한 타인의 좋은 평가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자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의복은 제 2의 피부라고 불리워질만큼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매개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잘 나타내 주는 옷을 입었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자아와 의복의 이미지가 일치하는 쪽으로 의복을 선택, 착용한다.

신체이미지는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감정이나 태도의 총체를 의미하며,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비교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사회적 대상이 주로 많은 여성이 도달하기 어려운 TV나 잡지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마른 모델이므로 본인의 신체이미지를 왜곡하게 되고(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 양윤, 2002)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만족하게 되며 이것이 의복에 대한 태도, 관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술한 것처럼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는 의복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므로 이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다른 성형태도는 하위차원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들이 성형수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 요구도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착용자 자신의 내면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고, 얼짱, 몸짱이라는 말이 대두될 정도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의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형태도가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힌다. 둘째,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셋째,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통해 먼저 개인들이 성형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성형태도와 외적특징인 신체 및 내적측면인 자아에 대한 태도를 의복행동과 연계시킴으로써 착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의복행동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의류업계에서 목표집단을 세분화하거나 의류 생산, 판매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이고, 종속변수는 의복의 심미성, 신체모습향상, 연예인 모방행동, 명품선호이며 이 변수들을 선택한 이유 및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적극적 외모개선방법인 성형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신체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고 외모

를 꾸준히 관리하는 여대생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의복의 미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의복으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일반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연예인의 의복을 선호하고 쫓아할 것으로 짐작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명품에 대한 선호 및 소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성형태도

외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형수술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의학 분야의 하나이며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점차 현대의학의 한 분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이영호, 199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1년도 성형외과 증가율은 전체의원 증가율의 4배이며, 2000년도 성형외과 총 수술비용은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01). 성형수술이 증가하는 원인으로서는 외모로 인한 사회적 냉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사회주류와 표준이 되는 집단들과 같게 보이려는 의도,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들 수 있고(조두영, 1997), 미용성형수술 환자들은 열등감과 가벼운 우울증을 자주 경험하였으며 그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주된 동기는 이러한 경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이고 성형수술을 받은 대다수의 환자들은 수술결과에 만족한다고 하였다(유영천, 이두형, 장충현, 1994).

김은주(2001)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는 1위가 얼굴로 이마, 광대뼈, 턱 윤곽 교정 등으로 작고 가름한 얼굴을 위한 얼굴윤곽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2위가 지방흡입수술 이었고 3위가 가슴관련 수술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이상적 미인으로 여겨졌던 이목구비가 예쁜 여성보다는 작은 얼굴과 균형 잡힌 날씬한 몸매를 중요시하는 최근의 사회적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성별, 연령에 따른 성형욕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차진희(1994)의 연구에서는 체형변형에 대한 태도를 성형, 교정, 체중조절, 극단적 변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남자보다 여자가 여성의 외모변형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었다. 전경란(2002)은 남성보다 여성이 외모지향성 및 건강지향성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언급하였으며, 연령별로 성형욕구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의 신체외모에 관심이 높은 20대가 40대보다 성형욕구가 높게 나타났다(송경자, 김재숙, 2005).

성형태도가 성형비밀, 성형가치, 성형동조, 성형비용, 성형위험수용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전경란(2002)의 연구에서는 지배욕구와 과시욕구가 높은 여성이 성형가치, 성형동조, 성형비용, 성형위험수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연령이 적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

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이상적인 외모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여 성형동조가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성형수술을 받는 동기 및 부위,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성형욕구의 차이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형태도의 하위요인 분석 및 이들 요인과 의복행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 외현적 특성과 그에 대한 자기의 관념을 포함한 것으로 영속성과 순간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역동적인 개념이다(Markus & Wurf, 1987). 자아개념의 하위개념인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보다 한정적이며 일관성있는 것으로, 그 의미에 있어 평가적, 감정적 요소가 내포되므로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김순구, 박정순, 1990). 다면적구조인 자아간의 비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자아존중감은 현실적 자아뿐만 아니라 이상적 자아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의복을 포함한 외모는 자아존중감의 평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키는 기능과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임숙자 외 4인, 2002). 자아존중감의 평가적 측면과 관련된 의복의 자아근접도는 의복이 한 개인의 자기가치, 자기존경이나 자기배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며, 사람들은 의복이 타인과의 상호교류에 있어서 경쟁력, 사회적 적합성, 효능성 등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Sontag & Lee(1995)의 연구에서는 의복을 포함한 외모에 대한 평가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감정은 자기 승인, 자기 사랑 또는 자기 만족과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예로서 적절한 의복착용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의 상실감을 회복시켜 자아존중감을 되찾는데 기여함으로써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유행요법을 들 수 있다(강혜원, 1995).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 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외모향상을 위하여 의복의 심미성, 유행, 성적매력을 중요시하였고(전경란, 이명희, 200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사회적 승인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며 옷을 아름답게 입고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구, 윤학자, 1986). 또한 흑인, 백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원하는 의복을 위해 쓸 돈이 충분하다는 느낌과 앙상블 의복을 멋있게 통합해서 착용할 수 있다는 느낌이 높았으며, 성적으로 매력적인 의복의 착용은 자아존중감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Ford & Drake, 1982).

전술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주로 결정요인, 의복이 자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착용자의 내면적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외형적인 신체나 성형에 대한 태도와 병행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체에 대한 응축된 개념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성연신, 1997). 신체 이미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신체 이미지는 다차원적이고, 신체 이미지의 변화 또한 다차원적이다. 둘째, 신체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며, 우리가 속한 사회에는 신체적 매력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여 여성이 좀 더 신체적 느낌 및 변화에 민감하다. 셋째, 신체 이미지는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복, 화장, 액세서리 등에 의한 인상관리에 따라 우리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감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신체 이미지는 행동에 영향을 주며, 이는 불만족스러운 신체 부분이나 체형을 가리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동기화 시킨다(Cash & Cash, 1990).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간의 연구에서 황진숙(1998)은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와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중요성 중에 어느 것이 의복추구혜택에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신체만족도에 비해 이상적 신체 이미지의 중요성이 의복혜택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경자(1999)에 의하면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이 유행에 관심이 많았으며, 심리적 의존도가 높고 의복을 통한 과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eekmore(1974)에 의하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의복의 선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선명 외 1인(2001)의 연구 결과, 청년기 여성들은 매스미디어에 비취지는 이상적인 외모를 통해 이상적인 미의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열중하는 인지적/행동적 성향이 높았으며,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체에 관심이 많고 열중할수록 의복을 통해 개성과 자기표현, 기분향상을 하고자 하며 이상적인 신체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의복을 사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체이미지는 다차원적인 특성 및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의복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체이미지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모지상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형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2: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연구문제 3: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연구문제 4: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의복 행동차이를 조사한다.

연구문제 5: 신체이미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의복 행동차이를 조사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로서 편의추출방법으로 선정하여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35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SPSS WIN 12.0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신뢰도분석, 성형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상관분석,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자아존중감 및 신체이미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의복행동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t*-test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중 성형태도는 전경란(2002)의 19문항, 자아존중감은 최미례(2000)의 10문항, 신체이미지는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 12문항을 선택하였다. 4가지 의복행동변인의 측정에는 각각 5문항씩 모두 20문항이 사용되었다. 즉 의복의 심미성은 전경란(2002), 명품선호는 홍희숙(1999)에서 5문항씩 선택하였다. 연예인 모방행동은 이미숙(2000)에서 4문항, 1문항은 연구자가 작성하였고, 신체모습 향상은 조선명(1999)에서 3문항, 2문항은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모두 Likert type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측정도구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성형태도는 .89, 자아존중감은 .85, 신체이미지는 .63, 의복의 심미성은 .57, 연예인 모방행동은 .84, 명품선호는 .81, 신체모습 향상은 .5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은 5명의 의류학 전공자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의복행동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신체모습향상의 1문항만이 심미성에 포

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과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성형태도: 성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이나 자아향상을 위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
- 2)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
- 3) 신체이미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고 신체적 외모를 유지,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 4) 의복의 심미성: 옷을 멋있게 입는 것이 중요하고 의복 착용시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는 태도
- 5) 의복의 연예인 모방행동: 연예인의 의복이나 액세서리 등을 따라하거나 소유,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

- 6) 의복의 명품선호: 값이 비싼 명품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구매하려는 경향
- 7) 의복의 신체모습 향상: 의복이 본인을 돋보이게 하고 신체적 결함을 감추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성형태도

성형태도에 관한 19문항을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주성분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이 설명한 총 변량은 약 72%였다. 요인 1은 '성형수술은 후유증을 감수하고라도 꼭 하고 싶다' '아름다워진다면 비록 위험할지라도 성형을 하고 싶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성형에 대한 위험 감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연예인처럼 성형을 하고 싶다' '성형을 해서 예뻐진 친구를 보면 나도 하고 싶어진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성형에 대한 욕구

<표 1> 성형태도에 대한 요인 분석

요인	항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변량	신뢰도 계수
성형에 대한 위험 감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성형수술을 꼭 하고 싶다.	.79	8.15	21.79	.90
	성형수술은 후유증을 감수하고라도 꼭 하고 싶다.	.79			
	성형결과가 다소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하더라도 꼭 해보고 싶다.	.72			
	아름다워진다면 비록 위험할지라도 성형을 하고 싶다.	.72			
	성공적인 성형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도 외국에라도 가서 할 수 있다.	.66			
성형에 대한 욕구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연예인처럼 성형을 하고 싶다.	.76	1.93	37.22	.87
	성형을 해서 예뻐진 친구를 보면 나도 하고 싶어진다.	.71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내가 저축을 하고 싶다.	.63			
	성형수술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다.	.63			
	성형에 대한 광고를 보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62			
성형을 통한 이미지의 향상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71	1.32	50.01	.74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69			
	성형을 통해 신체적으로 불만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66			
	날씬한 몸매를 위하여 성형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63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성형수술을 한다면 남자친구나 배우자에게 성형 전 모습이 알려지지 않기 바란다.	.82	1.22	61.26	.77
	성형을 한다면 성형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두 없애고 싶다.	.81			
	성형수술을 한다면 나만의 비밀로 하고 싶다.	.81			
성형에 대한 타인들의 기대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원한다면 성형을 할 수도 있다.	.81	1.03	71.78	.88
	부모님이 원하시면 성형을 할 수도 있다.	.81			

〈표 2〉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간의 상관관계

	자아 존중감	신체 이미지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성형에 대한 욕구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
심미성	.09	.46**	.24**	.23**	.23**	-.20**	.17**
연예인 모방행동	-.03	.34**	.22**	.37**	.30**	-.26**	.24**
명품선호	.04	.23**	.27**	.28**	.24**	-.11*	.19**
신체모습 향상	.25**	.43**	.12*	.13*	.24**	-.05	.09

* $p < .05$ ** $p < .01$

〈표 3〉 성형태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성형에 대한 욕구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74**	.60**	-.23**	.57**
성형에 대한 욕구		.56**	-.20**	.63**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			-.17**	.47**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18**

** $p < .01$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3은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성형을 통해 신체적으로 불만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성형을 통한 이미지의 향상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성형수술을 한다면 남자친구나 배우자에게 성형 전 모습이 알려지지 않기 바란다' '성형을 한다면 성형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두 없애고 싶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성형에 대한 타인들의 기대로 명명된 요인 5에는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원한다면 성형을 할 수도 있다' '부모님이 원하시면 성형을 할 수도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전경란(2002)의 연구에서 성형태도의 5개 차원이 성형비밀, 성형가치, 성형동조, 성형비용지불, 성형위험수용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2.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간의 관계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간의 관계는 〈표 2〉에, 성형태도 요인들 간의 관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성형태도의 3가지 요인인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성형에 대한 욕구,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은 의복행동변인 모두와 유의적인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것으로 성형에 대

한 광고를 보면 수술을 하고 싶고,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있으며, 성형을 통해 달라진 외모로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유명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의복으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며, 옷을 멋있게 입는 것이 중요하고 연예인의 차림새를 따라해 보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요인은 의복의 심미성, 연예인 모방행동, 명품선호, 신체모습 향상과 의미 있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본인의 성형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 옷을 입을 때 미적인 측면에서 불만족한 경우가 많고 굳이 연예인의 외모나 옷차림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상표의 옷을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 요인은 의복의 심미성, 연예인 모방행동, 명품선호, 신체모습 향상과 유의적인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로써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원하면 성형을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유명상표를 좋아하고, 옷이 멋있다는 평을 듣기 위해 노력하며, 연예인의 외모를 동경하여 이를 쫓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아존중감은 오직 의복의 신체모습 향상과 유의적인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것은 자아평가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몸매가 이상형에 가깝게 보이는 옷을 선택하고 의복을 신체보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이미지는 4가지 의복행동변인 모두와 유의적인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자기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며 외모관리를 하는 사람은 의복의 미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연예인의 의복, 액세서리 등을 모방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비싼 명품을 구매하고자 하며, 본인의 신체적 결함이나 불만을 감추는 옷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같이 성형에 대한 욕구요인은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요인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것은 성형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경우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형에 대한 비밀유

〈표 4〉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가 의복의 심미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F	R ²	R ² 변화량
의복의 심미성	신체이미지	.43	8.95**	92.53**	.21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16	-3.39**	55.87**	.24	.03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10	2.04*	38.97**	.25	.01

*p<.05 **p<.01

〈표 5〉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가 의복의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F	R ²	R ² 변화량
의복의 연예인 모방행동	신체이미지	.26	5.26**	41.28**	.13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25	-5.25**	34.17**	.20	.07
	성형에 대한 욕구	.25	5.20**	33.24**	.24	.04
	성형을 통한 이미지향상	.13	2.69**	27.20**	.25	.01

**p<.01

〈표 6〉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가 의복의 명품선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F	R ²	R ² 변화량
의복의 명품선호	성형에 대한 욕구	.24	4.57**	29.73**	.08	
	신체이미지	.18	3.39**	21.05**	.11	.03

**p<.01

〈표 7〉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가 의복의 신체모습향상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F	R ²	R ² 변화량
의복의 신체모습	신체이미지	.33	6.36**	78.71**	.18	
향상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	.17	3.44**	44.10**	.20	.02
	자아존중감	.17	3.24**	33.71**	.22	.02

**p<.01

지 요인은 다른 4가지 성형태도 요인과 유의적인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성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면 성형을 할 수도 있으며 성형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본인의 성형 전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3.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단계별 회귀분석을 사용한 것은 종속변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순서대로 찾아내고 이 변수들의 설명력 변화를 파악하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먼저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가 의복의 심미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4〉에, 의복의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와 같이 의복의 심미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신체이미지,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였고, 이 3개의 설명력은 25%였다. 그러나 이 3가지 중 신체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낸 반면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는 비록 유의적인 변수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결정계수의 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일수록, 또한 본인의 성형수술사실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을수록 의복의 미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의 연예인 모방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표 5〉에서 보듯이 성형에 대한 욕구, 신체이미지,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이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26%였다. 즉 성형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을수록, 자기 자신의 몸매에 자신이 있을수록 또한 성형사실이 드러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 경우에 연예인의 의복이나 액세서리를 따라 하기를 좋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 요 인은 설명력의 변화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형에 대한 욕구 요인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성형태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신체이미지가 의복의 명품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표 6>에,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가 의복의 신체모습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표 7>에 제시하 였다.

<표 6>과 같이 의복의 명품선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성형에 대한 욕구와 신체이미지였고 이들의 설명력은 11%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의복의 명품선호가 신 체이미지나 성형태도와의 상관계수가 대체적으로 낮았기 때 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성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자기 자신의 신체가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 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명품의복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나 유의적인 변수들의 설명력이 낮아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7>과 같이 의복의 신체모습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신체이미지,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 자아존중감이었고, 이 3가지에 의한 설명력은 23%를 나타내었다. 이것으로 신 체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성형은 가치 있는 일 이고 자신감 회복의 수단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또한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의복행동 차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의복행동 차 이는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8>에 제 시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에는 하위 25%, 자아 존중감이 높은 집단에는 상위 25%에 해당하는 피험자가 포 함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평균은 28.13, 표준편 차는 2.98이었고 높은 집단의 평균은 42.51, 표준편차는 2.16이었다.

<표 8>과 같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의복행동변인은 신체모습 향상이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의복의 신체모 습 향상 점수가 높아 자아평가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의복을 통해 본인을 돋보이게 하고 신체모습 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았다. 이것은 이선재(1991)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의복을 통해 자신을 보다 향상시키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표 8>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의복행동 차이

종속 변수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n=77)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n=76)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심미성	17.13(2.93)	17.75(2.51)	-1.59
연예인 모방행동	13.74(4.17)	13.46(4.17)	.45
명품선호	13.18(3.58)	13.78(3.93)	-1.12
신체모습 향상	17.62(2.33)	19.02(2.51)	-4.00**

**p<.01

<표 9> 신체이미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의복행동 차이

종속 변수	신체이미지가 낮은 집단(n=86)	신체이미지가 높은 집단(n=81)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심미성	15.81(2.32)	18.84(2.44)	-9.19**
연예인 모방행동	12.02(3.81)	15.35(3.89)	-6.24**
명품선호	12.15(3.07)	14.65(3.78)	-5.22**
신체모습 향상	16.94(2.34)	19.60(2.26)	-8.35**

**p<.01

줄 수 있다는 자기 확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의 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였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5. 신체이미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의복행동 차이

신체이미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의복행동 차이 는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 시되어 있다. 신체이미지가 낮은 집단에는 하위 25%, 신체이 미지가 높은 집단에는 상위 25%에 해당하는 피험자가 포함 되었다. 신체이미지가 낮은 집단의 평균은 32.14, 표준편차 는 2.20이었고 높은 집단의 평균은 45.81, 표준편차는 2.31 이었다.

<표 9>와 같이 신체이미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 는 4가지 의복행동 변인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신체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의복의 심 미성, 연예인 모방행동, 명품선호, 신체모습 향상 점수가 높 게 나타났다. 신체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의복의 심미성과 신 체모습 향상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선명 외 1인(2001)이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감정을 가질수록 의 복을 통해 개성, 자기표현의 혜택과 이상적인 신체모습을 위 한 혜택을 추구하였다고 언급한 연구결과 및 고애란 외 1인 (2004)의 연구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의복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고 신체모습을 더욱 향상시키려 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입은 의복이나 액세서리 등을 모방하려 하고, 비싼 명품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이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다소 눈에 띄더라도 현재 청소년들이 호감을 갖고 동일시대상으로 생각하는 연예인의 옷차림 또는 비싸고 특이한 명품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서울시내 여대생 356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형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성형에 대한 욕구, 성형을 통한 이미지의 향상, 성형에 대한 비밀 유지, 성형에 대한 타인들의 기대의 5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이 설명한 총 변량은 약 72%였다. 둘째, 성형태도의 3가지 요인인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성형에 대한 욕구,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은 4가지 의복행동변인인 의복의 심미성, 연예인 모방행동, 명품선호, 신체모습 향상과 유의적인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신체모습 향상을 제외한 3가지 의복행동변인은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와 부적상관을,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의복의 신체모습 향상과, 신체이미지는 4가지 의복행동변인 모두와 유의적인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셋째, 의복의 심미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신체이미지,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였고, 의복의 연예인 모방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성형에 대한 욕구, 신체이미지,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이었다. 의복의 명품선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성형에 대한 욕구, 신체이미지였으며, 의복의 신체모습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신체이미지, 성형을 통한 이미지향상, 자아존중감이었다. 넷째,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의복의 신체모습향상이 높았으며, 신체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하여 의복의 심미성, 연예인 모방행동, 명품선호, 신체모습향상 모두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의 미적측면을 중요시하고 의복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연예인의 의복이나 명품을 선호하고 구매하려는 여대생들은 성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본인의 성형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수술

에 대한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소극적으로 나타내주는 방법인 의복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개선, 표현할 수 있는 성형에 대하여도 역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 명품시장의 매출 증가, 동일시대상으로서의 연예인 부각현상 등이 성형수술의 증가와 연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여대생일수록 의복이 본인의 결점을 보완하고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며 다소 과감한 연예인의 옷을 모방하거나 비싼 의복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신체이미지가 높은 여대생을 표적 집단으로 하여 의류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개성적이고 멋진 디자인이나 명품 등을 개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서울시내에 소재한 대학의 여학생에만 한정되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여성으로 일반화시켜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후속연구에서는 점차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남성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지역이나 연령 등에 따른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의 차이 및 이와 관련된 포괄적인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표준화된 도구가 아닌 선행연구에서의 측정도구를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가 직접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사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형후의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고애란, 이수경(2004). 여고생의 신체발달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아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11), 189-203.
 김순구, 박정순(1990).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4), 305-313.
 김순구, 윤학자(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 김은주(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연신(1997). 소비와 광고속의 신체이미지, 성과 사회. 서울: 나남출판사.
- 송경자(1999).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태도적, 지각적 신체이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경자, 김재숙(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다중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4), 391-402.
- 유영천, 이두형, 장충현(1994).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태도조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1(3), 452-459.
- 이미숙(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재(1991). 한, 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 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2), 173-187.
- 이영호(1993). *성형외과학*. 서울: 의학문화사.
- 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 양윤(2002). *현대의상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 전경란(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전경란, 이명희(2003).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이 외모향상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6), 643-653.
- 조두영(1997). *입상행동과학*. 서울: 일조각.
- 조선명(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명, 고애란(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집단별 차이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차진희(1994). 신체이미지, 성적체감, 의복정체감 사이의 상관관계연구: 대전, 충남북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례(2000).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 효과와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국일보(2001). 지난해 성형수술비 5000억, 2001. 8. 9.
- 한국일보(2007). 25-29세 여성 62% 성형수술 경험, 2007. 2. 21.
- 홍희숙(1999). 상황과 소비자특성에 의한 의류제품 혜택세분화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진숙(1998). 신체 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302.
- Cash, T., & Cash, E. (1990). Body weight and body image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4, 290-301.
- Creekmore, A. M. (1974). Clothing related to body satisfaction and perceived peer self. *Research Report*, 239, Michigan: Technical Bulletin, Michi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 Ford, I. M., & Drake, M. F. (1982). Attitude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 187-196.
- Markus, & Wurf.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Sontag, M. S., & Lee, J. N. (1995). Toward a valid, reliable measurement instrument for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International Textile and Apparel Association, Minneapolis. In 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 양 윤, *현대의상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2007년 4월 27일 접수, 2007년 7월 20일 채택)